



8년전 그 모습 '산소탱크' 지성이 돌아왔다

박지성이 20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에인트호번 소재 필립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 리그 플레이오프 1차전 AC밀란(이탈리아)과의 홈경기에서 상대 필립 멕세스와 공을 다루고 있다. 8년만에 에인트호번 유니폼을 입고 복귀한 박지성은 68분간 중형무진 그라운드를 누비며 AC밀란과 1-1 무승부를 이루는 데 일조했다.

/연합뉴스

빌로우, 호랑이 막판 스퍼트 불 붙일까



내리쬐는 직구 위력·변화구 안정돼
오늘 끝찌 한화 상대 첫 선발승 도전

‘호랑이 군단’이 달콤한 휴식을 끝내고 막판 스퍼트에 나선다. 휴식기를 보낸 KIA 타이거즈가 22일 만나게 되는 상대는 한화 이글스. 새로운 외국인 투수 빌로우가 가장 먼저 마운드에 오른다.

앤서니를 대신해 ‘호랑이 군단’의 일원이 된 좌완 빌로우는 KIA의 후반기 조커였다. 빌로우의 합류와 양현종의 복귀 시점이 맞물리면서 선발진의 재편이 이뤄졌다. 선발진이 비로소 제 모습을 갖추게 되자 에이스 윤석민은 위기의 팀을 구하기 위해 마무리로의 이동을 선택했다.

마운드의 물이 꾸러지면서 4강 싸움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왔다.

반격의 시작점으로 삼았던 6일 롯데와의 경기에서 소사가 4.1이닝 4실점으로 패전투수가 됐다. 이어 출격한 양현종도 부상 복귀전에서 4회를 버티지 못하고 조기 강판됐다.

결국 빌로우는 지난 8일 연패 상황에서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한국 데뷔전을 치렀다. 출발은 좋았다. 1회 8개의 공으로 세 명의 타자를 깔끔하게 막아냈다. 2회에도 4번 이호준과 5번 권희동을 각각 중견수 플라이와 삼진으로 돌려세웠지만 조영훈에게 첫 안타를 맞으며 흔들렸다. 연속해서 볼넷을 내주며 2사 만루, 김태균을 땅볼로 잡으며 실점 위기를 넘겼지만 볼넷으로 시작된 3회 결국 모창민에게 적시타를 맞으며 첫 실점을 기록했다.

첫 등판의 성적은 6이닝 4피안타 3사구 4탈삼진 3실점. 중간중간 위기가 있었지만 퀄리티 스타트를 끊으며 일단 합격점을 받았다. 두 번째 상대는 SK. 1·2회를 깔끔하게 막았지만 3회 빌로우의 약점이 노출됐다. 선두타자 김상현을 우전 안타로 출루 시킨 뒤 볼넷을 내주며 흔들렸다. 정상호의 번트 타구를 처리하다 2루에 악송구를 하며 위기를 자초했다. 두 번째 등판 기록은 4.1이닝 6피안타 4볼넷 2탈삼진 5실점(1자책).

두 번의 선발 등판을 통해 빌로우의 장점과

단점이 드러났다. 높은 타점에서 내리쬐는 위력적인 직구와 안정적인 변화구 컨트롤은 빌로우의 위력을 보여주었지만, 주자가 있는 상황에서의 위기 관리 능력이 아쉬웠다. 빌로우는 세 번째 선발 등판에서 시즌 2승이자 첫 선발승을 노린다.

지난 18일 LG와의 군산 홈경기에서 빌로우는 2-4로 뒤진 7회 중간 계투로 등판해 기분 좋은 승리를 안았다.

7·8회를 완벽하게 막으며 경기의 흐름을 가져왔고, 8회말 대거 5점을 뽑아준 타선 덕에 승리투수가 됐다.

빌로우는 앞선 등판보다 조금은 편안한 상태에서 선발승에 도전한다.

지난 주말 짜릿한 역전극의 주역이 되면서 마음의 부담을 덜었고, 리그 최하위의 기동력을 보이는 한화와의 승부인 만큼 타자와의 승부에 집중할 수 있다. 여기에 한화만 만나면 불을 뿜는 타자들도 지원군으로 가다라고 있다.

빌로우가 모처럼 팀의 연승을 이끌고 막판 스퍼트에 불을 붙이지 관심이 쏠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PSV 복귀… AC밀란과 챔스리그 PO 1차전 선발 출장

68분 8.81km 중형무진 맹활약… 경기 최우수 선수 선정

8년 만에 에인트호번 유니폼을 입은 박지성(32)이 ‘산소탱크’의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성공적인 복귀전을 치렀다.

박지성은 21일 AC밀란과의 유럽 축구연맹(UEFA) 챔피언스 리그 플레이오프 1차전에 선발 출장해 68분간 중형무진 그라운드를 누비며 견제함을 알렸다. 비록 팀은 홈에서 1-1 무승부를 거두는 데 그쳤지만 상대는 이탈리아의 ‘거함’ AC밀란이었다.

당초 박지성은 이 경기에서 후반에 교체 출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사흘 전 치러진 고여헤드와의 정규리그 3라운드 경기를 앞두고 현지 언론이 박지성의 복귀를 예상했지만 필립 코루 에인트호번 감독은 박지성을 출전선수 명단에서 제외했다. 선수보호 차원에서 허벅지를 다친 박지성을 무리하게 출전시키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이날 플레이오프 1차전을 앞두고도 박지성이 후반 교체 투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지만 코루 감독은 박지성을 ‘깜짝’ 선발 출장시켰다.

이날 경기에 선발로 출장한 AC밀란 선수들은 도합 챔피언스 리그 290경기에 출장해 21골을 기록한 반면 에인트호번 선수들은 62경기 출장에 4골에 불과하다. 이중 54경기 4골이 박지성의 기록이다. 경험 면에서만 국한한다면 박지성이 이날 에인트호번 전력의 87%를 차지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박지성은 AC밀란 선수들 앞에서 다소 주눅든 듯한 에인트호번의 짧은 공격진을 전

성기 시절의 활동량으로 뒤에서 받쳐줬다. 킬패스까지 뿌리며 득점 찬스도 수차례 만들었다.

UEFA 홈페이지에 게시된 경기 기록을 보면 박지성은 무려 8810m를 달렸다. 후반 15분 터진 천금같은 동점골은 박지성의 관록이 만들어낸 명장면이었다.

역속 상황에서 공을 잡은 박지성은 상대 수비수들이 이미 후방 깊숙이 자리를 잡아 앞선 전진 패스를 하는 대신 뒤따르던 수비수 제프리 브루마에게 공을 건넸다. 브루마는 곧바로 강력한 중거리포를 날렸고 이는 최전방 공격수 팀 마타우쉬의 헤딩골로 이어졌다.

박지성은 후반 23분 홈팬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플로리안 요제프존과 교체됐다. 홈구장에 빼곡히 들어앉은 3만여 관중들은 ‘위송 빠레’ 응원가를 다시 부르며 베테랑의 귀환을 축하했다.

경기 후 글로벌 축구매체 ‘골닷컴 이탈리아’는 박지성에게 별 4개 반을 부여하며 ‘경기 최우수 선수’(MOM=Man of the Match)로 선정했다.

코루 감독은 “박지성은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에 대한 판단이 뛰어나다”며 “기술적으로도 뛰어난 선수”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에인트호번과 AC밀란의 UEFA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은 28일 이탈리아 밀라노의 산시로 경기장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추신수 눈앞에 둔 ‘100-100클럽’ 언제쯤 가입할까

도루 99개·홈런 98개 관심

미국 프로야구에서 맹활약하는 추신수(31·신시내티 레즈)가 언제쯤 100홈런-100도루 클럽 가입을 달성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현재 추신수는 통산 도루 99개, 홈런 98개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열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홈경기(신시내티 2-5패)에서는 4타수 무안타로 한 차례도 출루하지 못했다. 전날 애리조나전(신시내티 5-3 승)에서 추신수는 통산 100번째 도루 달성을 위해 뛰었지만 상대 포수의 송구에 잡혔다.

추신수는 올 시즌 홈런 15개, 도루 14개를 기록 중이다. 추신수는 8월 3일 이후 홈런포를 쏘지 못했다. 마지막 도루 성공은 8월 15일이다.

2005년부터 메이저리그에서 뛰 추신수는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소속이던 2009년 20홈런 21도루를 기록했고, 2010년에는 22홈런 22도루로 2년 연속 시즌 20-20 클럽에 들었다. 부상으로 고생한 2011년에도 8홈런 12도루를 기록하는 꾸준함을 보였다.

이번 시즌 120경기에 출전한 추신수는 8경기마다 1개씩의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도루는 8.57경기마다 하나씩 성공했다.

신시내티는 전체 162경기 중에서 126경기

를 치렀다.

최근 대형포가 뜰하지만 조만간 통산 ‘100-100 클럽’에 가입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메이저리그 현역 선수 중에서 100-100 클럽에 가입한 선수는 총 37명이다.

추신수가 올 시즌에 100-100 클럽에 든다면 아시아 선수로서는 메이저리그 통산 2번째가 된다.

추신수보다 먼저 이 기록을 달성한 아시아 선수는 스즈키 이치로(40·뉴욕양키스)다. 그는 통산 110홈런 469도루를 기록 중이다.

/연합뉴스



‘신비로운 박지성’… PSV 클럽 100년 역사 레전드 선정

네덜란드 프로축구 에인트호번이 8년 만에 복귀한 박지성(32)을 클럽 역사 100년을 대표하는 선수중 하나로 선정했다.

에인트호번은 21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비로운 박지성(Mysterious Ji-Sung Park)’이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박지성이 2003년부터 3시즌 동안 에인트호번에서 뛰며 유럽축구

무대에 이름을 알려나갈 당시의 활약상이 담겼다.

1913년 8월 31일 창단한 에인트호번은 100주년을 맞이 100일 전부터 ‘100일의 100년’이라는 이벤트를 하고 있다.

박지성에 앞서 호나우두(1994~1996·이화 에인트호번 소속 연도), 뤼트 굴리트(1985~1987), 아르연 로번(2002~2004) 등 ‘레전드’들이 이 이벤트에서 다뤄졌다.

/연합뉴스